광주시, AI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주도권 잡았다

균발위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선정
1800억 인공지능 사업 기획
AI데이터센터 연계…선도도시 탄력

광주시가 부산시·경기도와 협력해 18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분야 사업을 공동 기획한다.

광주시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 사업'에서 '초연결 AI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53개 사업이 신청해 서류와 발표 심사 등 3차 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사업이 선정됐다. 각 프로젝트에는 전액 국비로 5000만원의 연구기획 비용이 지원된다.

'초연결 AI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광주시가 주관하며 부산시와 경기도가 참여한다. 초광역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데이터 공유, 제품개발, 시장 진출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며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사업 추진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획을 총괄하는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 5월까지 사업기획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800억 규모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주축이 돼 AI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으로 슈퍼컴퓨팅,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인프라와 연계하는 데이터 거점을 마련하고, 부산시는 풍부한 의료산업 인프라, 서부산 스마트헬스케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스마트시티와 연계하는 실증 거점을,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벨리 성공모델을 활용해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연구개발(R&D) 기업, 인력, 스타트업을 연계하는 연구개발 거점으로 추진하게 된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헬스케어 산업은 지역 주력산업 중 하나로 국내외 시장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세계적인 AI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복지 컨트롤 타워 광주복지재단
광주복지연구원으로 거듭난다

광주복지재단이 복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재)광주복지연구원'으로 거듭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오병채 대한노인회 시연합회장, 함철호 광주사회서비스원 이사장, 김경신 전남대 교수 등 복지현장 관계자 20여 명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개원한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복지재단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광주복지재단 조직혁신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먼저 광주복지재단 정책연구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3개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는 등의 조직혁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광주복지재단의 명칭을 '광주복지연구원'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복지재단 사무처는 정책연구, 복지 빅데이터, 복지정책 지도 등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빛고을·효령노인타운은 사회공헌형 사업 및 일자리중심형 기관으로 운영하는 조직안을 마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복지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복지현장 대표 등과 함께 광주복지재단 조직 혁신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민간·군공항 상생 걸림돌 우려"
광주시의회 성명

광주시의회(의장 김용집) 의원 일동은 13일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문제가 시·도 상생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전 의원 성명을 통해 "최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광주와 전남 양 시·도가 갈등과 대립을 빚고 있어 깊은 우려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지금은 갈등과 대립보다는 큰 틀에서의 지속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해법 모색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빛그린 산단에 '청정 대기산업 클러스터' 본격 조성

내년 부지매입비 등 146억원 확보
2022년 완공…2800명 일자리 창출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하고 한국판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청정 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광주에서 추진된다.

광주시는 "내년 환경부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 146억원을 확보해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산업·수송 분야 사업장의 오염 물질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 시설을 집적화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으로, 2022년까지 빛그린 산단 3만㎡에 450억원을 들여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설계비 20억원을 이미 확보해 기본·실시 설계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마친 뒤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광주시의 청정 대기산업 실증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결과 2807명의 일자리 창출, 3098억원 생산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국회에서 발의된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광주 청정 대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증 시설, 진흥 시설, 환경산업협의회가 클러스터에 추가로 들어서도록 제시했다. 다른 지역에 동일한 분야 클러스터 지정을 방지해야 한다는 보완 의견도 환경부 등에 냈다.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최근 대기산업 수요는 급증하지만, 부품·장비 해외 의존도는 높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저수온 피해 대비 '입식신고'
전남도, 20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오는 20일까지 겨울철 본격적인 수온 하강에 따른 저수온 피해에 대비해 양식어가들은 반드시 입식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양식어가들의 경우 입식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식어가들은 피해 상황을 대비해 양식수산물에 대한 입식신고를 반드시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특히 입식미신고 어가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재난지원금은 물론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해마다 입식미신고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어가가 발생해 그동안 복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입식신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시·군 읍면주민센터를 통해 양식어업인들에게 유선과 공문 등을 통해 입식신고를 독려하고,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과 수협을 통해서도 어업인 교육·지도시 입식신고 제도를 홍보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년 기후대기분야 사업비
전남도, 1111억원 확보

전남도는 내년 기후대기분야 예산으로 1111억원을 확보해 정부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는 올해 예산 663억원 대비 67.5% 늘어난 448억원 증액된 결과로 대기분야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기가 마련됐다. 사업비는 미세먼지, 기후대응, 자연생태, 생활환경 등 4개 분야 6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미세먼지 분야는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 사업 등 총 6개 사업 20억원, 기후대응 분야에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등 총 14개 사업 37억원이 편성됐다. 자연생태 분야로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등 총 22개 사업 209억원, 생활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총 20개 사업 845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생활환경 분야의 경우 대기질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예산이 올해 265억원(국비 232억5000만원, 도비 33억원) 대비 262억원 증가한 527억원(국비 471억원, 도비 5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전기승용차 4000대, 전기화물 1100대, 전기버스 10대, 전기이륜차 800대, 수소자동차 300대 등 보급과 함께 수소충전소 2기도 구축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이범우 전남도 기후생태과장은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보호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